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42째주 (10월 17일)

정교회 주보



성 클레오파트라

루가 제 4주일

제 7차 공의회 참석 교부, 호세아 예언자

제 8조,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주일 입당송 / 14, A 42

•성 교부들 찬양송 / 85, B 178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A 226

•사도경 : 디도 3:8~15 / 봉독서 539

•복음경 : 루가 8:5~15 / 124, B 6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클레오파트라

우리 교회에서 10월 19일 축일로 기념하는 클레오파트라 성녀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우아로스 라는 성인이 고문을 당했을 때 성녀는 성인을 치료해주었고, 우아로스 성인이 안식 한 후에는 그의 유해를 팔레스타인으로 가져와 묻고, 우아로스 성인을 기리는 성당을 지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왕국의 정원 관리사였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 때 클레오파트라는 성 우아로스 성당으로 달려가 자신의 아들을 부활시키거나 자신도 데려

가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지친 클레오파트라는 잠이 들었고 꿈에서 우아로스 성인이 밝은 옷을 입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시신을 성 우아로스 성당 근처의 묘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후 성당 가까이 머물면서 많은 자선활동을 하다가 7년 만에 평안히 안식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의미 깊게 전해 주시고 있다.

1) 주님의 값진 말씀

주님의 말씀은 별 깊이가 없이 매우 단순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여 심오한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 양심이 바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는 많은 변화를 얻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비록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족해도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기적을 받게 되어 경건과 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 깊은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영적 음식이다.

2) 거룩한 말씀의 씨

믿음, 경건, 덕 등 영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씨를 뿌려야 한다. 거룩한 말씀의 씨는 성찬식 때 설교와 교리공부, 성경공부, 성서읽기와 신앙대화, 기도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3) 거룩한 말씀의 열매

거룩한 말씀의 씨는 우리를 영적으로 일깨워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 제일 훌륭한 결실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은 꼭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

나 그 열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열린다.

4)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적인 회생이 따른다

첫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교리도 배우며 성서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배우려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도 깨닫고 감동하며 믿음의 열정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중 더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 그러한 열정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서 점차 멀어지는 현상을 맞게 된다. 그 이유는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귀찮아하며 이전의 그릇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기 때문이다. 사랑과 정의 자비 등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맞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악마와 수도원장의 대화



한번은 악마가 수도원장에게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네 수도사들이 일하면서 서로 싸우게 하려고 하루 종일 애를 썼지요. 그렇지만 이제 모두를 내 뜻대로 쳐부수고 패배를 안겨주리라고 생각될 때, 불행하게도 매일 밤마다 수도사들이 내 일을 망쳐버린답니다. 내 뜻과 그물망을 말입니다.”

수도원장이 되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요? 수도사들이 당신의 뜻과 그물망을 어떻게 망친단 말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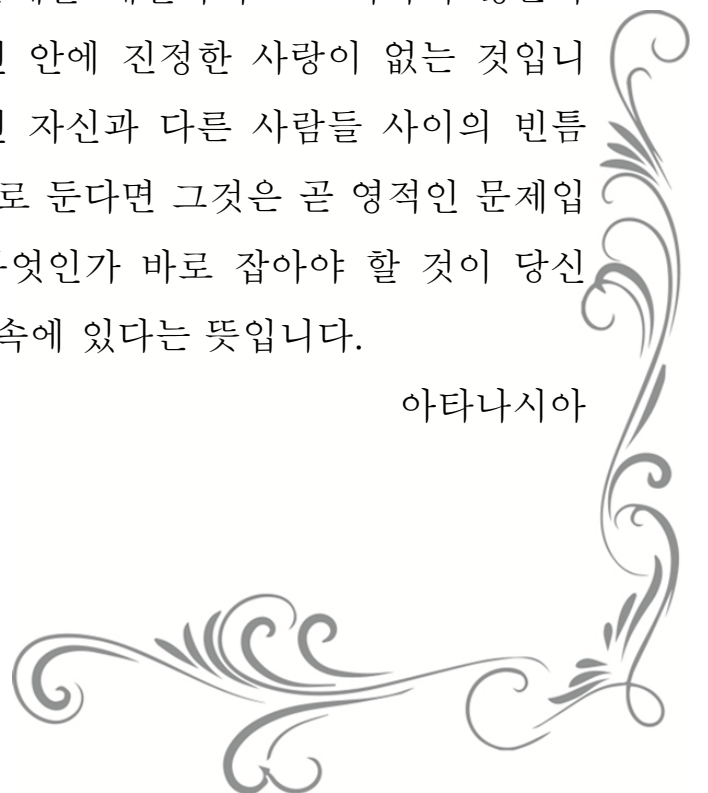
그러자 악마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석후소과를 마치고나서 모두들 무릎을 꿇고 서로 용서를 구하더라는 말입니다. 수도원장의 용서와 축복을 청하고 나서야 각자의 방으로 가서 쉬더군요.”

수도원장과 악마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

는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곧, 겸손과 용서가 사탄의 올가미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할 때 사탄의 뜻은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이 내게 못된 말을 하나 했어? 흥, 그럼 나는 두 마디 해야지.” “세 개나 했어? 좋아, 나는 여섯 개로 갚아주지.” “나하고 말을 안 해? 나도 말 안 하고 말지.” “나를 못 본 체 해? 나도 아는 체 안 하고 말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형제나 자매가 당신과 이야기를 안 합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곧, 당신 자신을 잘 살펴서 그 이유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근본 문제를 확인하십시오.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은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빈틈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곧 영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온라인 전시회 준비

지난 2020년 한국정교회 12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하였던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직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온라인 전시회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최될 온라인 전시회를 지난 여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 에섹스 선구자 성 요한 수도원으로부터의 축하서신

영국의 에섹스 선구자 성 요한 수도원의 원장수도사께서는 출판권이 에섹스 선구자 성 요한 수도원에 있는 니짜의 성 그레고리오스의 “아가강화”와 성 소프로니오스 수도사제의 “아토스 성산의 성 실루아노스” 책을 한국정교회 정교회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에 대해 축하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 코로나 시대에 영적신앙생활 참여

코로나19 전염병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의 시련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성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월요일 업로드되는 성서공부, 금요일 저녁 9시에 있는 장년회 성인 신자분들의 줌 모임, 토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주일학교 줌 모임, 일요일 오후 1시에 있는 신데즈모스와 예비신자 줌 모임에 참여하여 우리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유익한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주일 성찬예배에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분들은 한국정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되는 성찬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장년회의 구세주 변모 수도원 봉사

지난 10월 9일(토) 다시 한번 장년회에서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간예식



10월 18일(월) 성 루가 복음사도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